

1920년대 중국 남성 지식인의 '연애'관

— 구여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金潤秀*

<목 차>

1. 정전선(鄭振燾)의 <나의 혼인사(我自己的婚姻史)>를 통해 본 지식인과 구여성의 결합
2. 규범화된 '애정'표현 방식
3. 계몽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연애'
4. 나가며

1. 정전선(鄭振燾)의 <나의 혼인사(我自己的婚姻史)>를 통해 본 지식인과 구여성의 결합

최근 몇 년 동안 문학 및 역사 전반에서 '연애'¹⁾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애'를 다룬 논의들은 근대적 '연애'가 수용되는 경로에 주목하는 한편, 문학과 잡지 매체 속에 구현된 '연애'의 표상을 통해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다.²⁾ 이에 연애 담론에

* 高麗大 BK21 中日語言文化教育研究團 研究教授.

1) '연애'는 'Love', 'Amour', 'Liebe'의 번역어로 자리 잡은 용어로, '인격적으로 독립한 남녀 상호간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정의된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남녀의 결혼과 가정 생활은 반드시 '연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근대 개체로서의 인격적 완성이라는 의미 외에도 부부 사이의 '연애'에너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우생학적 종족발전의 의미도 담고 있다.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 중국사연구 79 권, 2012년, 142-145쪽 참조. 이처럼 '연애'는 결혼 전의 청년들뿐 아니라 결혼 후 가정은 꾸민 부부사이의 애정적 감정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어휘였다.

대한 탐색을 통해 근대성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많이 고찰 되었으나 담론의 실제적 결과물로서의 연애의 실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고는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난 '연애'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당시 '연애'의 실상이 가졌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연애'가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은 1910년대 중반부터이며, 1920년대에 그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여성해방운동의 주요 기지였던 《부녀잡지(婦女雜誌)》³⁾의 주요 논객이었던 엔스(宴始)가 "중국의 젊은 남녀들은 '연애'에 관해 이야기 하느라 바쁘다. '연애신성', '연애지상'과 같은 화두를 거의 입에 달고 산다⁴⁾"고 표현할 정도로 '자유연애'는 이 시기를 대표할만한 시대적 아이콘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지식인들은 왜 '연애'에 열광했을까. 서구의 다른 어떤 관념보다도 사랑이라는 관념이 중국의 지식계를 흔든 이유는 그것이 중국의 관습 및 질서와의 단절을 가장 실감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연애'는 단적으로 결혼의 자유를 의미했다. 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습에 대한 반발이요 부모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 것이다. 특히, 애정 없는 결

2) 중국의 '연애'담론을 고찰한 대표적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선이, <近代中國의 婦女解放論: 《新青年》과 《婦女雜誌》의 自由戀愛論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권, 1999; 許慧琦, <《婦女雜誌》所反映的自由離婚思想及其實踐: 從性別差異談起>, 近代中國婦女史研究 12卷, 2004; 안재연, <리앤아이,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38호, 2006; 손해룡, <1920년대 전반 한·중 소설의 '戀愛' 표상: - 《創造》와 《創造季刊》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논문, 2008; 천성립, <'性博士' 張競生, 그리고 1920년대 중국인의 '戀愛'와 '性' 담론> 중국학보 57권, 2008;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 중국사연구 79권, 2012년.

3) 1915년에 간행된 《부녀잡지(婦女雜誌)》(1915-1931)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합잡지이다. 《부녀잡지(婦女雜誌)》(1915-1931)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10대 잡지 중 하나로, 발행지가 중국의 대도시에서 대만, 싱가포르에 까지 이르며, 발행기간, 발행수,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해 봤을 때, 당시의 여성잡지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학적 지식을 통해 가정을 보살피는 신현모양처주의를 선전하는 보수적 성향의 잡지로 출발하여 5.4시기 진보세력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이후, 상무인서관의 결정으로 1920년부터 백화문(白話文)으로 간행하게 되었고 1921년부터 25년까지 진보적 성향의 장시첸(張錫琛)이 편집인을 맡으면서 여성해방운동의 주요 기지이자 신여성 담론 생산의 중심지로 역할하게 된다.

4) 宴始, <中國型的戀愛方式>, 《婦女雜誌》 9권 5호, 1923.5, 235쪽.

혼이 가져오는 폐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한결같이 제기되었다. 1910년대 중반부터 20년대에 중국 지식인들은 “유교도덕과 전통적 속박들에 대한 반발”로 ‘자유연애’를 옹호하였고⁵⁾ ‘자유연애’는 애정 없는 결혼의 실상에 대한 고발과 비판에 의해 강화되었다.

둥하이(東海)대학교 교수 정진선(鄭振堦)은 《부녀잡지(婦女雜誌)》 9권 2호에서 <나의 혼인사(我自己的婚姻史)>라는 글을 통해 구여성과의 애정 없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을 표했고, 이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자, 9권 4호에 <정진선(鄭振堦)군의 혼인사에 대한 비평(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이라는 특별란이 마련되었는데, 독자들의 글이 18편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⁶⁾

1920년대부터 전면적으로 불어 닥친 개조의 사조 속에서 가족개혁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신남성과 구여성의 관계만큼 많은 이를 곤혹스럽게 한 주제도 없을 것이다. 구여성과의 애정 없는 혼인생활이라는 소재는 당시 불가피했던 지식인과 구여성의 결합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이러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다.⁷⁾ 이 작품들은 모두 주인공이 부모의 명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생기는 갈등과 불행을 다루고 있다.

정진선(鄭振堦)은 봉건적인 중매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매우 불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신의 혼인사를 공개함으로써, 사적인 가정사를 공공담론으로 끌어올렸다. 정교수는 불행한

5) 김영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121쪽.

6) 당시 《부녀잡지(婦女雜誌)》의 편집인은 정진선(鄭振堦)의 글을 실은 후, 정군의 사례를 강조하며 말하기를 “지금의 젊은 남녀들은 기계식 혼인에 불만을 갖기 때문에 정선생처럼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이 지금 매우 가치 있는 글이라 생각한다. …… 정군의 혼인문제는 그들 두 사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로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鄭振堦,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 9卷2号, 1923.2, 7쪽.

7) 남성지식인의 관점에서 구여성과의 애정 없는 혼인으로 인한 고통을 그린 작품들로 羅家倫의 《是愛情還是苦痛》, 陳翔鶴의 《西風吹到了枕邊》, 郁達夫的 《蕩蕩行》, 歐陽予倩의 《回家以後》, 郭沫若의 《漂流三部曲》(《歧路》, 《煉獄》, 《十字架》), 許地山的《命命鳥》, 顧一樵의《芝蘭與茉莉》, 建南의《愛蘭》 등이 있다.

혼인생활을 애정 없는 결혼, 즉 '연애'의 부재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교수가 바람직한 새 가족의 이상을 현실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보다는, 먼저 과거의 전통을 정형화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통해, 즉 구여성인 부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신문명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 점이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인습들을 맹렬히 비판함으로써, 신문명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고상한 '연애'를 동경하는 지식인에게 무식한 아내는 열등함의 표상이고, 결핍의 기호로 인식되었다. 유교도덕과 전통적 속박을 상징하는 전통여성인 부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애'는 더욱 절실히 소망되어진 것이다. 이는 남성지식인들이 구여성에 대한 비판과 거부를 통해 신문명의 일환인 '연애'의 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연애'에 대해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신여성'이다. '연애'의 표상 중심에는 신여성과 '자유연애'가 있었고 이에 신여성과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근대와 함께 등장한 '신여성'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전유하며 '연애'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이제까지의 근대담론이 신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던 만큼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구여성 특히 아내의 존재방식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는 지식인과 구여성의 결합을 통해 '연애'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애'에 관한 담론들은 각종 신문, 잡지를 통해 활발하게 양산되었다. 이 때 담론 생산의 주체는 지식인이며, 근대적 '연애'에 관한 지식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인들이었다. 그들이 주체로 담론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연애'지식을 근거로 '연애'의 성격을 규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것이 '연애'이고 어떤 것이 '연애'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애'의 본질은 현실과 괴리되어 이상화된 조건으로 구성되어 갔다. 본고는 1920년대 남성지식인이 구여성과 애정표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점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남성지식인들의 '연애'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낭만적 성격이 짙은 사랑 담론이 어떻게 계몽적인 '연애'서사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전히 존재하였던 봉건적인 중매결혼으로 인해, 또한 남성과 달리 신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현저히 적었던 이유로 인해, 불가피했던 지식인과 구여성의 결합은 과도기를 통해 '연애'의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규범화된 '애정'표현 방식

《부녀잡지(婦女雜誌)》(1920-1925)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가 '연애'관련 담론들이고, 통신란에서 편집진이 구독자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연애란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연애'는 배움(지식)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었다. 이처럼 생소한 외래어였던 '연애'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보급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자유연애'는 중국의 근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지표가 되었다.⁸⁾ 중국 5.4시기(1917-1927)의 지식인들은 결혼에 관한 유교도덕과 전통속박들에 대한 반발로 근대적 '자유연애'를 옹호하였는데,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전통적인 '색(se)'이라는 범주와는 달리 근대적 '연애'는 '배움(지식)'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이나 기법(art)을 요구하였다.⁹⁾ 서구적인 사랑의 방식을 전달하는 용어로 등장한 '연애'는 전통적인 사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개념이었다. '연애'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수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행위규범에 대한 수용으로 발전해나갔다.¹⁰⁾

정교수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신지식을 익히지 못

8) 줄고, <《부녀잡지(婦女雜誌)》(1920-1925)를 통해 본 신여성의 글쓰기>, 중국어문논총 제49집, 2011.6, 363쪽.

9)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 역사, 2004, 121쪽.

10) 손해룡, <1920년대 전반 한·중 소설의 '戀愛' 표상: —《創造》와 《創造季刊》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논문, 2008, 2쪽.

한 구여성인 부인이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여, 즉 애정 없는 혼인생활에서 오는 고통 때문이라고 밝힌다. 정교수는 자신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부인이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서술하며, 그 예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여름방학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제자매 모두 나와서 환영해주었는데, 오직 부인만이 부엌에서 일을 하며, 나를 보러 나오지 않았다. 내가 부엌에 그녀를 찾으러 들어가서야 그녀는 비로소 나를 보러 나왔으며, 2분도 안 되어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¹¹⁾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나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할 뿐이었다.¹²⁾

그녀의 무애정은 실로 구식여자의 일반적 폐단이다. 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당시 서양인이 서로 포옹하며 키스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또한 "자유연애"니 "연애신성"이니 등의 합성을 들은 적이 없으나, 《어빙의 아내(Irving의The wife)》를 읽은 적이 있고, 또한 친구인 蕭 선생이 丈夫親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그러므로 결혼 후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의 애정도는 보통 남성보다 높았다.후에 내가 이러한 정황들을 蕭 선생에게 알리자, 蕭 선생은 "스케치북(Sketch book)에서 말하는 아내(wife)는 문학가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의 대답을 믿지 못한다.¹³⁾

인용문을 통해 보았을 때, 정교수는 애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스스로 구분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학예술의 텍스트에서 가장 중심적인 제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애정이다. 그러나 정교수가 생각하는 '연애'란 전통 사회부터 존재해왔던 남녀 간의 이성적인 이끌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교수가 생각하는 '연애'란 애정표현의 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변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 낯설고 새로운

11) 鄭振堃,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 9卷2号, 1923.2, 12쪽.

12) 鄭振堃,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 9卷2号, 1923.2, 14쪽.

13) 鄭振堃,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 9卷2号, 1923.2, 16쪽.

사랑의 형식은 발달한 문명을 상징했던 서구의 사랑 형식에 대한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1920년대 '연애'는 근대문명을 내면화한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였던 만큼 서구에 대한 지식인의 모방 욕망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연애'의 향유는 무엇보다 독서라는 고상한 취미의 습득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외국작품에 대한 독서는 '연애'의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⁴⁾ 인용문을 통해 보았을 때, 정교수가 어빙의 아내(Irving의The wife)라는 외국 소설을 읽으며 부부간의 애정표현을 상상 속에서 규범화하고, 서양 소설 속의 상황들과 인물들에 자신의 그것을 대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소설에서의 낭만적 이야기는 지식인들의 '연애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현실이 아닌 독서체험을 통한 관념화된 '연애'였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식구들과 달리 직접 달려 나와 반겨주지 못하는 것은 대가족 속에 살아가는 당시의 아내로서는 보편적인 모습이었고, 이마를 쓰다듬는 정도의 애정표현은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보일 수 있는 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들을 통해 자신의 아내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애정의 부재로 인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정교수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식인이 상상하는 '연애'의 모습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식인들의 '연애'는 세련된 감정과 우월한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 가능했는데, 애정표현에 관한 고상한 지식들을 아내와 공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에게 명령적인 어조로 개량(改良)을 요구한다.

여름방학에 돌아갔을 때, 나는 그녀의 발과 얼굴에 약간의 개량(改良)이 있었으나, 여전히 완전하게 개량(改良)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녀에게 물었다. “작년에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아직 기억을 하고 있으?” 그녀는 “모두 잊어버렸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나는 “당신이 절반만 기억해내도 내가 기뻐했을 텐데, 모두 잊어버렸으니 나에게 미안해해야하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나의 그녀에 대한 첫 번째 불만이었다.¹⁵⁾

14)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사상, 2001, 353쪽.

정교수는 아내에게 전족을 풀고, 분을 바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전족과 분을 바르는 것은 구시대의 습성이므로 신지식인인 정교수는 그녀에게 ‘개량(改良)’을 요구한다. “그녀의 발과 얼굴에 약간의 개량이 있었으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그는 시종일관 “완전히” 개량(改良)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의 애정도는 보통 남성보다 높았다.”는 그의 표현과는 달리 억압적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교수가 논하는 사랑이란 서구의 사랑 형식에 대한 동경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에 전통 가정 및 전통적 습성에 대한 비난과 비판 속에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교수뿐 아니라 정교수의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다른 남성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부인은 확실히 의지가 박약한 구식여자이다. 감정적으로 그녀를 격동시켜 봐야 소용이 없다. 그녀는 분을 바르고, 전족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嚴敦易, <一封信>)¹⁶⁾

결혼 초, 내가 그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암시를 주어, 더 이상 분을 칠하지 않게 되고, 이도 닦게 되었으나, 이미 작아진 발은 방법이 없으며, 그녀의 선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은 더욱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개조할 방법이 없다. (Y.D 我的離婚的前後)¹⁷⁾

다른 것은 모두 좋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발이 너무 작아 문명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陳待秋, <新舊的衝突>)¹⁸⁾

이처럼 당시 많은 수의 남성 지식인들이 구여성인 자신의 아내가 문명화되

15) 鄭振堃,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 9卷2号, 1923.2, 14쪽.

16) 嚴敦易, <一封信>, 「對於鄭振堃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35쪽.

17) Y.D. (吳覺農), <我的離婚的前後>, 「對於鄭振堃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41쪽.

18) 陳待秋, <新舊的衝突>, 「對於鄭振堃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24쪽.

지 못한 것에 대해 경멸하는 심사를 감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교수를 비롯하여 독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다른 남성 지식인들의 글 속에서 '개조(改造)'와 '개량(改良)'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개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조의 자질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 당시 남성 지식인들이 '연애'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여성은 새롭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개조의 대상인 구여성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출현하였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였다.

구여성이 전족을 하고 분을 바르고, 이를 닦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못하며 모든 일에 대해 남편에게 의존하는 형상이라면, 소위 신여성은 근대적 지식을 갖춘 문명화된 여성을 의미한다. 신여성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구여성 즉 전통적인 여성과의 대비 구도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구여성은 무기력하고 낙후된 구질서를 상징하였고, 지식인들은 이러한 낙후된 상태인 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으므로, 신여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되었다.

아이가 아프자, 부인이 급히 나를 찾으러 아침 차로 도시에 왔다. 나는 곧 그녀와 함께 치엔먼(前門)에 가서 약과 약재를 사가지고 통조우(通州)에 가는 차에 탔다. 그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아이를 근심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녀가 길을 걷고,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모두 매우 활기차보여,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닌 신식 여자 같았다. 나는 그녀를 매우 사랑하였다.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였다. 내가 그녀와 다시 화해한 후 이 몇 시간 동안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¹⁹⁾

이처럼 정교수가 아내를 순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은 그녀가 근대적 지식을 갖춘 신여성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아픈 아이의 약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다니는 그녀에게서 정교수는 신식여성의 모습을 느낀다. 그리고 신식여성과 같은 모습의 아내에게서 종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아내가 근

19) 鄭振堃, <我自己的婚姻史>, 《婦女雜誌》9卷2号, 1923.2, 17쪽.

대적 지식을 갖춘 신식여성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을 갖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가 교육받은 신여성이라는 것은 남성들이 고급한 '연애'를 하기 위한 지표로 고려되었다. 지식과 취미의 부족은 아내로서의 결격사유가 된다. '연애'할 자격까지 제시하였다는 것은 '연애'의 신성함에 대한 지식인의 낭만적 이상을 나타낸다. 정교수가 아내를 신여성으로 인식하게 되자 사랑의 감정이 생겨났음을 통해 보았을 때, '연애'감정은 상대방의 근대적 지식의 소유여부로 가늠되며, '연애'가 고상한 지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이 가지는 우월감은 고급한 교양과 고상한 취미에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였다.

정교수는 물론 대다수의 독자들도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원인을 구여성인 아내의 무지에 돌렸다. 아내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교수를 비판하는 글들이 있지만, 구여성인 아내의 '연애'에 대한 무지가 불행한 혼인을 야기했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조하였다.

여기서 정교수의 부인이 정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정교수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교수 및 독자들은 애정을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는 지속적인 의사소통관계, 근대에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보면서,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서의 사랑과 구분하고 있다.

정교수 부인은 남편이 학업을 위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배웅을 하고, 식사하는 남편에게 음식을 더 권하고, 남편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등의 애정표현을 보일 정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남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감정 표현은 열등한 것으로, 정교수가 추구하는 즉,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규범화된 '연애'방식은 진화하고 우등한 문명으로 분류되며 그녀의 사랑법은 '연애'에서 배제된다.

3. 계몽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연애'

1920년대 전반 근대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신여성들의 숫자를 살펴보면 '연애'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였다. 많은 수의 구여성들이 지식인 남편과 신여성의 '연애'사건에 의해 버림받고 불행히 여생을 보내다 죽었다. 1920년대 전반 지식인들은 구여성을 무식한 존재로 취급하지만, 허영, 사치, 방탕의 신여성들을 배제하기 위해 그녀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신성한 '연애'를 통해 내세우는 근대적 여성상 역시 순결과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여성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유연애'의 대상자였던 신여성들 역시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만큼의 교양 수준만 요구되었다.

1920년대 지식인들에게 구여성인 아내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정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통적 인습에 저항하는데 '자유연애'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무기였으나 똑같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보다 약한 여성들을 만날 때 '자유연애'의 효력은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

정전쑨(鄭振鐸) 교수의 <나의 혼인사(我自己的婚姻史)>가 발표된 이후, 저우쥘런(周作人)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대다수 지식인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나는 정전쑨(鄭振鐸)의 <나의 혼인사(我自己的婚姻史)>을 열심히 읽어보았다. 정군의 처지를 나는 매우 동정하고 있다. 그 부인의 불행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글 속에서 정군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가 엄격하고 제 멋대로이며, 정이 없고 이성에만 의존하는 남자라고 생각된다. 정군은 세상만사를 참고 견디어나갈 필요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희생자는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부인과의 관계를 참고 견디어 나가지 못해, 부인을 희생시키는데, 사회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웃음거리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²⁰⁾

20) 周作人, <離婚與結婚>, 《周作人集外文(上)》,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1995, 500쪽. (張

마오둔(茅盾) 역시 저우쥘런(周作人)의 의견에 동조하며, “많은 수의 남성들이 정군 부인을 변호하였으니, 이는 매우 기뻐할 만한 일이다. 냉혹한 기계적인 현실 사회 뒤편에 여전히 한 줄기의 뜨거운 힘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고통받는 이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다.”²¹⁾라고 의견을 밝히었다.

<정전선(鄭振堦)군의 혼인사에 대한 비평(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에 의견을 제시한 많은 남성 지식인들은 대체적으로 아내의 무지로 인한 정전선(鄭振堦)군의 불행을 이해하고 동조하면서도, 정교수의 아내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는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구여성인 아내에 대한 동정어린 인식은 1920년대 전반의 중국 지식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다. 각성된 지식인들은 난감함을 느끼게 한 현실을 맞부딪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여성인 아내였다. 지식인들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 가부장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연애’를 맛보고 싶었지만 보다 억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여성들의 존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가부장제라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었고,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다. 특히 이혼당한 본처는 여자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가볍게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비극을 언급한 후 과도기 남성 희생론을 주창하게 된다. <정전선(鄭振堦)군의 혼인사에 대한 비평(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에서도 논자들은 ‘과도기’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한다.

구식여성이 남편에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남편에게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한 걸음 물러서, 그녀가 애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구식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결점이다. 과도기에 고통받는 의식있는 남성들은 그녀를 용

文娟, 《五四文學中的女子問題敘事》, 吉林大學 中國現當代文學 博士學位, 2008, 203쪽에서 재인용)

21) 茅盾, <讀「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以後>, 《茅盾全集》 15卷, 人民文學出版社, 1987, 37쪽. (張文娟, 《五四文學中的女子問題敘事》, 吉林大學 中國現當代文學 博士學位, 2008, 205쪽에서 재인용)

서해야할 뿐 아니라 그녀를 가엾이 여기고 사랑해야한다. 나는 사람이란 목적이 아니므로, 애정을 쏟는다면 상대방이 어떤 비밀스러운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陳待秋, <新舊의衝突>)²²⁾

이혼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혼당하는 '본처' 즉 '구여성'의 문제였다. 남성에게는 자유이혼의 실천이 아내에게는 강제이혼이라는 역설로 다가왔던 상황이 문제였던 것이다. 재혼이 어려운 당시 사회 속에서 이혼당한 여성이 당시 직면하게 될 비참한 처지가 볼 보듯 뻔한 상황 속에서 이 여성들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해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신남성의 이혼요구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과도기'에 신지식인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구여성인 아내를 계몽하는 것이었다. 억압된 가부장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구여성을 계몽하는 것은 신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과제였다.

여성은 아직 자립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기이다. (陣德微, <女性觀和戀愛觀>)²³⁾

그녀를 여동생처럼 여기고 선도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 정군의 보호와 지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임으로부터 정군은 벗어날 수 없다. (元啓, <對於“逃婚”의同情>)²⁴⁾

나는 또한 정선생이 실용적으로 그의 부인을 가르치는 것에 감탄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기록하게 한다든지 신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부인을 데리고 춤을 배우러 간다든지, 영어를 배우러 간다든지 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元啓, <對於“逃婚”의同情>)²⁵⁾

22) 陳待秋, <新舊의衝突>, 「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25쪽.

23) 陣德微, <女性觀和戀愛觀>, 「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37쪽.

24) 元啓, <對於“逃婚”의同情>, 「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39쪽.

25) 元啓, <對於“逃婚”의同情>, 「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38쪽.

이에, 교육받지 않은 본처를 임시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상에 근접한 배우자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라는 남편의 말에 홀로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정교수의 부인 역시 정교수에게 자신을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교수가 자신의 부인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꼈던 순간은 그녀가 근대적 지식을 갖춘 신여성처럼 행동하였던 때였다. 즉, ‘연애’라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신학문을 접해본 상대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에 적합한 합리적인 이성의 획득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신지식인 남편에게는 구여성인 아내에게 ‘연애’를 가르쳐야 하는 계몽자적 입장이 요구되었다. 신지식인 남편이 구여성인 아내를 계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연애’에 대한 이해였다. 남녀 간의 사랑, 곧 ‘연애’는 인간의 정신생활 가운데서도 대단히 높고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애’라는 감정의 계몽은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관건이었다. ‘연애’를 이해하는 것이 근대인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하는, 계몽에 있어서 핵심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교수의 이혼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중에는 아내의 신식교육을 통해 ‘연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정군의 부인은 개량(改良)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절대 개량(改良)이 불가능한 여성이 아니다. 정군 자신도 “치루(啓如)는 반은 신여성 절반은 구여성인 여자”라고 말한 바 있듯이, 그리고 전체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완전히 구식여자였는데 북경에 온 이후, 반은 신식, 반은 구식인 여성이 되었다. 만약 정군이 철저히 그녀에게 배움을 선사하여 그녀로 하여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게 한다면, 그녀는 분명 신식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지식이 생기면 분명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녀도 이전처럼 당신의 애정에 메마르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다. (陽少努, <重圓的希望>)²⁶⁾

26) 陽少努, <重圓的希望>, 「對於鄭振堃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30쪽.

애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애정을 만들어내려면 “지식으로 시작해야한다.” 지식을 그 불쌍한 여자에게 주려면, 먼저 그녀와 많은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어야한다. 나는 당신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張厭如, <女子是有情的>)²⁷⁾

이처럼 이지의 측면이 강조된 '연애' 혹은 '애정'은 감정의 차원보다는 이성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인간의 내적 감정은 이제 계몽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여성 독자인 장옌루(張厭如)는 <여자는 애정이 있다(女子是有情的)>에서 “그녀를 복경, 상해, 혹은 남경에서 공부하게 해서 그녀로 하여금 세상물정을 정확히 이해하게하면,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편지 혹은 시를 정선생에게 써 보일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사랑하는” 혹은 “My Dear” 등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명사들도 말 할 수 있게 될 것이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역시 여성 독자인 쉰커메이(徐呵梅)도 <편견있는 남성의 편견(偏見의男性之偏見)>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그녀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시오. 고상한 관념과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부부간의 애정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소.”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연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신지식인 남편에게는 구여성인 아내에게 '연애'를 가르쳐야 하는 계몽자적 입장이 요구되었다.

진정 연애를 이해하는 자는 첫째, 일반 여성을 존중하고, 억압받는 여성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 무지한 여성을 수치로 죽게 하거나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은 연애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陣德微, <女性觀和戀愛觀>)²⁸⁾

'연애'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을 통해 부권의 지배를 벗어나 근대 사회에 적합한 근대인을 창출하는 방법론적 통로였다.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은 부부

27) 張厭如, <女子是有情的>, 「對於鄭振堽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9卷4号, 1923.4, 62쪽.

28) 陣德微, <女性觀和戀愛觀>, 「對於鄭振堽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9卷4号, 1923.4, 37쪽.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 구조를 개편하여 사회의 기초 단위를 재정립하는 단초였다. 그것은 또한 자녀 세대를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개화사상을 흡수한 새 세대가 기존 관념과 구습의 속박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탈피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의 자유는 결혼 당사자의 개인적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개혁을 이루는 중요한 동력이었다.²⁹⁾ ‘연애’의 감정이 없는 부부 즉 농후한 감정이 없는 부부는 총명하고 준수한 자녀를 얻을 수 없다³⁰⁾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애’는 우생학적 종족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계몽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연애’는 가족 구조의 근대화라는 사회적 계몽의 수단인 한편, 그 스스로 높고 고상한 정신의 상태를 의미함으로써 계몽에 의해 도달해야 할 목적의 자리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웬디 라슨(Wendy Larson)은 중국 20세기 초 지식인들의 애정서사 속에서 드러나는 ‘연애(戀愛)’가 ‘정(情)’, ‘련(戀)’, ‘색(色)’ 혹은 ‘애뜻함(想思)’ 등 근대 이전의 사랑을 대체하였으나 정작 외래어인 ‘love’가 ‘정’과 어떻게 다른지, 또한 ‘love’의 번역어인 ‘연애(戀愛)’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였다.³¹⁾ 이 낯설고 새로운 사랑의 형식은 발달한 문명을 상징했던 서구의 사랑 형식에 대한 동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혼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고, 인간의 정신생활 가운데서도 대단히 높고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당시

29) 김지영, <계몽적 연애의 탄생 - 1910년대 춘원의 자유연애 담론 연구>, 어문논집 제49집, 2004, 350쪽.

30) Y.D. (吳覺農), <我的離婚的前後>, 「對於鄭振堦君婚姻史的批評」, 《婦女雜誌》 9卷4号, 1923.4, 41쪽.

31) 안재연, <리얼아이,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38호, 168쪽 참조.

'연애'는 낯설고 새로운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였다.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랑의 형식으로서 '연애'는 근대 문명을 내면화한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게 되었고, 당시의 신식 지식인들은 '배움'을 통해 이 낯설고 새로운 문명화된 가치로서의 '연애'를 향유하고자 했다.

신식 지식인들은 서구의 사랑 형식을 동경하는 동시에, 전통가정과 혼인 양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애'를 더욱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 비판의 중심에는 구여성인 아내가 있었다. 새로운 사랑의 형식을 현실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보다는, 구여성인 부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연애'의 개념 및 방식을 규범화하였다. 즉, 구여성인 부인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인습들을 맹렬히 비판하는 한편, 전통적인 방식의 애정 표현을 '연애'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신문명의 일환인 '연애'의 개념을 규범화하였다. 이처럼 '연애'는 근대적 지식계층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형성화 되었고, 인간의 정신생활 가운데서도 대단히 높고 고상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계몽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신지식인 남편에게는 구여성인 아내에게 '연애'를 가르쳐야 하는 계몽자적 입장이 요구되었는데 '연애'라는 감정의 계몽은 하나의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진 동시에 우생학적 종족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계몽의 수단으로도 인식되었다. 이처럼 '연애'는 계몽에 있어서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근대 사회에 적합한 근대인을 창출하는 방법론적 통로로 작용하게 되었다.

< 參考文獻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 역사, 2004.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파잉》, 소명출판, 2009.

천정환, 《근대적 책읽기》, 서울: 푸른사상, 2001.

夏曉虹, 晚清女性與近代中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錢虹, 文學與性別研究, 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7.
- 周作人, 離婚與結婚, 陳子善、張鐵榮編, 周作人集外文(上),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1995.
- [美] Ono Kazuko, *Chinese Women in a Century of Revolution, 1850-1950*,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 [美] Wendy Larson, *Women and Writing in Modern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김지영, <계몽적 연애의 탄생 — 1910년대 춘원의 자유연애 담론 연구>, 《어문논집》 제49집, 2004.
-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 《중국사연구 79권, 2012년.
- 안재연, <리엔아이, 신여성, 근대성의 이데올로기: 중국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38호, 2006.
- 졸고, <《부녀잡지(婦女雜誌)》(1920-1925)를 통해 본 신여성의 글쓰기>, 《중국어 문논총》 제49집, 2011.
- 손해룡, 《1920년대 전만 한·중 소설의 '戀愛' 표상: — 《創造》와 《創造季刊》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논문, 2008.

< 中文提要 >

1923年2月,《婦女雜誌》上刊出了一篇題為《我自己的婚姻史》的文章。這篇文章的主要內容是東海大學鄭振勳教授講述的自己的離婚經過。主要描述了與舊式妻子無法交流的痛苦。鄭教授在文章中將自己離婚的原因歸結為“沒有愛情”。《我自己的婚姻史》刊出後,引發了一場熱烈的討論,讀者的來信很多,編輯特別刊出了<對於鄭振勳君婚姻史的批評>,這些來信能較為全面地反映出當時男性知識人與舊式妻子之間存在的愛情觀上的差異。

‘戀愛’是1920年代很有代表性的以新知識人為主追求的思想觀念,但西方式的戀愛是對於當時中國人來說,是通過“學習”才能懂,一般的傳統婦女很難了解的一個觀念。鄭教授的離婚史反映出一個傳統的觀念與西方式的戀愛形式之間相互衝突的問題。鄭教授的舊式妻子雖然以傳統的方式表達愛情,但因為表達感情(戀愛)的方式已被規範化,鄭教授覺得妻子不懂感情,很不滿於她不懂西方式戀愛的現實。新時代出現的戀愛表現出近代社會裏個體追求新生活的慾望,在此與前時代的“情”完全不同。當時知識分子以啓蒙者的立場去盡力教傳統婦女‘戀愛’,其目的是培養近代人。

關鍵詞: 新女性、旧女性、戀愛、男性知識人、啓蒙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1.	2013. 2. 19.	2013. 2. 21.	2013. 2. 28.